"호남은 민주당의 뿌리…호남정치 복원 직접 챙기겠다"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 〈2〉 김부겸 후보

5·18, 여순사건 특별법 책임지고 조속 처리하겠다
보궐선거 상황 녹록지 않아 확고한 신념 갖고 정면돌파
지역 유턴기업 세제·금융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은 3일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중심이다. 호남 없인 당도 없고 정권재창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호남 정치의 복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다. 제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수도권과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제 정치적 요람은 '5·18 광주정신'이다. 오늘의 저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광주·전남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당 내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지적되고 있는 '원내대표·당대표·대권주자 특정지역 편중현상'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순천 사람이다. 대표 경쟁하는 이낙연 의원님은 영광이 고향이시고 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에 지사, 총리까지 지내셨다. 호남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님도 나오실 거다. 만일 불균형이 생기면 호남 의원님들께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의 요직을 맡겨 중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당을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 처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삶의 지표와 같다. 당 대표가 된다면 잘못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서울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부산은 원래 민주당의 험지라 쉽지 않은데다 혹여 서울까지 내준다면 향후 대선에 엄청난 적신호가 켜지는 건 분명하다"면서 "당 대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당 개표가 대권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순간 대선도 물 건너간다. 참여정부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외딴 섬에 갇혀버렸는지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이 줄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지속하는 한 둘 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금융부문에 있어 지역에 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둬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난 6월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유턴기업들에게 현재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고 했다. 수도권은 복귀 시 3년간 100% 감면한다고 했다.

지역에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경기도 이천 소재 서경저수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계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 상황 점검을 위해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휴가를 취소한 것에 이어 두 해 연속으로 하계휴가를 가지 못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보냈으며, 애초 이번 주 휴가를 내고 사저에 머무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해 이날 오후 비 피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강 2중 민주전대는 '어대낙'?

이낙연, 과반득표 목표
김부겸·박주민 후보 대의원 표심 공략 맹추격
후보 단일화 등 변수 촉각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초반 판세가 '1강(이낙연) 2중(김부겸·박주민)'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낙연 대세론'이 막판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중반 이후 단일화 등의 변수로 전체 판이 요동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이낙연 후보 측은 안정적인 과반 득표를 목표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확보, 당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여 과반 이하의 득표로 승리할 경우, 사실상 '상처뿐인 영광'에 그치면서 향후 대권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과거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전 대표의 2016년 전당대회 득표율 54.03%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측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공약 제시 등을 통해 표심 다지기에 공들이고 있다.

또 각 지역위원장들을 밀접 접촉하며 대의원들의 표심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3일 "윈지 코리아 여론조사 결과처럼 전반적인 판세는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확연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55%, 많게는 60% 정도의 지지율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각각 대의원과 당원 표심을 앞세워 이 후보를 맹추격하는 모습이다. 우선 김 후보 측에서는 대의원 표심을 바탕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대의원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은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 후보의 대세론은 뿌리가 깊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 임기 문제 등을 놓고 각을 세우며 추격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대의원들은 조직된 표이고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일반 여론조사 민심과는 내용이 다르다"며 "대의원 표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드하고(앞서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후발주자인 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모습이다. 상승세를 이어가면 김 후보를 역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청년, 여성 당원 중에서는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많다"며 "이낙연·김부겸 양강구도에서 이낙연·박주민 양강구도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판을 흔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이 약해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